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 근거 이론에 의한 탐구

김혜연**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시대적 흐름은 2022년 말 ChatGPT의 보급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이후로도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공적 업무는 물론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등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신호들로 인해 작문교육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2A01028017).

** 단독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국어교육과 부교수

담론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을 쏟아내며 관련 연구의 지평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 작문 연구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글쓰기와 관련하여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실천적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권태현, 2023; 양재석, 2024; 오선경·장미정·박정은, 2023; 이슬기, 2024; 이윤빈, 2023; 장성민, 2023).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몇몇 연구들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오선경·장미정·박정은, 2023; 장은정, 2023; Gasaymeh, Beirat, & Qbeita, 2024), 일부 연구들은 인터뷰나 자기보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Bedington, Halcomb, McKee, Sargent, & Smith, 2024; Kim, Yu, Detrick, & Li, 2025).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글쓰기가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단계이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가’도 함께 탐구하여야 도구 활용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목적이라면 다양한 관점의 질적 연구들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국어교육 분야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작문 및 작문교육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된다. 예비교사는 학생과 교사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학생으로서, 또한 (예비)교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작문 및 작문교육에 대해 다소 복잡한 심경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 사용자 인식을 다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관련 교사교육을 위한 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직접 글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를 비교 분석하게 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조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쓰기 과제에 대해 직접 한 편의 글을 써 보고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동일한 쓰기 과제에 대해 다시 한 편의 글을 생산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두 양식의 글쓰기의 과정과 결과를 비교하고 작문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는 자기보고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본인이 평소에 막연히 생각하던 바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작성케 하는 대신, 동일 과제에 의한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 간 비교 및 작문교육적 성찰을 도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그럼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경험 부족에서 올 수 있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추측이나 오해에 훨씬 덜 의존할 수 있으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나아가 참여자 간 비교 분석 역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료로부터 귀납적·체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에 의거한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생각을 최대한 포함하는 동시에 이들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거나 갈등 혹은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포착해내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의 실천 방법 중에서도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그 과정을 좀 더 객관화하고 인과적 관계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인공지능과 글쓰기

그간 인공지능을 교육의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한 연구 성과들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나, 2022년 말 OpenAI에서 ChatGPT를 개발 및 배포하면서 우리의 일상 및 학습에서의 변화가 더욱 빨리 앞당겨졌다. 배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방문 및 활용 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미 전문 영역 및 학술 분야에서는 사용 횟수가 극적으로 성장하여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Bedington et al., 2024).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enAI)은 인공신경망, 자연어 생성, 기계 학습 및 딥러닝을 활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한다(Gasaymeh et al., 2024). GenAI는 콘텐츠와 디자인 제작뿐만 아니라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업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GenAI 도구의 도입은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ChatGPT가 널리 사용되면서 학생들이 읽고, 쓰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Higgs, & Stornaiuolo, 2024). GenAI 도구의 사용은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 및 개인화된 교육 제공에 유리하며, 학생 간 및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 및 소통을 촉진하고, 접근성과 형평성 개선,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창의성과 혁신 증대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글쓰기 기능 개발을 방해하여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표절 위험 및 독창성 훼손 가능성, 저작권,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이용 관련 문제, 잘못된 정보 확산 및 조작 가능성 등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Gasaymeh et al., 2024).

또한 최근 들어 GenAI에 의거한 정보 생성 결과들이 근본적으로 신뢰성 및 질적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Chiang, 2023), 원본 콘텐츠 분포의 꼬리가 소멸하는 ‘모델 붕괴’ 현상을 일으켜 인터넷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AI 생성물로 인한 이른바 ‘인터넷 혼탁’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타나고 있다(Mulligan, 2024).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언어 자료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내용에 비해 질적으로 저하된 답변 혹은 원본 자료와 여러 의미로 달라진 답변을 생산하게 된다. LLM에 의한 정보 생성은 통계적 확률 가능성에 의거하여 가장 그럴듯한 언어적 연쇄를 찾는 방식이므로, 인간이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찾는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거짓 정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답변을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을 발생시킨다(Alkaissi & McFarlane, 2023). 일부 전문가들은 AI를 더 많이 학습시킴으로써 환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오류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성능이 좀 더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사용자의 경계를 낮추어 환각에 의한 거짓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Heaven, 2024). 그러므로 LLM에 의한 정보 생성은 현재와 같이 출처와 알고리즘이 미지수인 한,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믿거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불신하는 신뢰성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Heersmink, De Rooij, Vázquez, & Colombo, 2024).

이렇듯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 연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및

향후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Gasaymeh et al.(2024)에서는 9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GenAI 작성 도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데 비해 기술적 지식은 부족한 편이지만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기르는 데 유익하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edington et al.(2024)은 대학 강의에서 GenAI를 활용해본 교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GenAI의 답변이 신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거나 편견을 재생산 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성적 피드백(formative feedback)이나 수사적 의사결정, 정서적 부담의 완화 등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통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Higgs & Stornaiuolo(2024)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GenAI 작성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일 처리 및 새로운 기술로 인한 재미, 사고와 쓰기 과정의 촉진 등에서 유익함을 인식하지만, 윤리적이고 비판적 차원의 고려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Kim et al.(2025)은 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GenAI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해당 경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쓰기 과정 및 결과,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도움을 얻었다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환각의 문제, 고차원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의 부족 등 한계도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Jin, Sun, Pan, & Lin(2025)은 은유 분석에 의거한 대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GenAI의 역할을 기술적 지원, 텍스트 개발, 변혁적 잠재력, 위협의 네 차원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GenAI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4T 피라미드 모형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에 활용하는 일이 학습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작문교육의 맥락에서 많은 탐구와 제언들이 이어졌다. 장성민(2023)은 ChatGPT의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작문교육에서 질문 능력과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인식 능력, 참조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능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권태현(2023)은 작문 역량과 작문 과정 지도 및 평가에 대한 원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질문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질문 능력 혹은 프롬프트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윤빈(2023)은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에 따른 질문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슬기(2024)는 GenAI 활용 글쓰기에서 대학생 대상의 질문 전략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진영·김형성·송보라·김지수(2023)는 고등학생의 고쳐쓰기에서 GenAI 활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작문교육 실천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국내에서도 작문 과제에서 GenAI를 활용하는 데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한 연구들이 몇몇 수행되었다. 주민재(2023)의 연구에 따르면, 인식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GenAI를 작문에 활용하는 일이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보았지만 창의성과 자신감 측면에서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오선경·장미정·박정은(2023)은 대학 글쓰기에서 GenAI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면서 대학생들이 인용 방법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록 작문에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장은정(2023)은 예비교사들이 협력학습에서 GenAI를 활용함으로써 정의적 차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적시의 피드백에 의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국내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GenAI의 작문교육 도입에 대해 비판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며,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이는데, 이는 국제적 추세와 사뭇 다르다. 더욱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GenAI 도입의 다양한 양상과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작문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예비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종종 모순된 감정을 느끼곤 한다(김혜연, 2015). 그러므로 예비교사 대상 교육에서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학생으로서의 인식은 물론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유사한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지니게 된다. 교사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의 관점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성찰하도록 독려하는 경향이 강하다(Timoštšuk & Ugaste, 2010). 그러면서도 예비교사들은 동시에 아직 대학생으로서의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관점과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일반적인 대학생에 비해 과제나 활동에 대해 좀 더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암시적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며(Harrison & Lakin, 2018), 이들의 인식 확장을 위하여 토의나 대화 등의 교육이 권장되기도 한다(VanDerHeide & Johnson, 2020).

국내에서는 예비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국외에 비해 양적인 측면은 물론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 측면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혜연, 2024). 그러나 국내 작문 교육 영역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이 예비교사들의 인식 관련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다. 서수현·정혜승(2013)은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쓰기 윤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쓰기 윤리의 인식과 실천이 모두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혜연(2015)은 학생이자 교사인 이들의 모순적인 정체성 때문에 본인이 받는 작문교육에 대해서도 각 정체성에 따른 요구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요구들은 일관적일 때도 있지만 서로 상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종민(2023)의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이

교양 작문 강좌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작문교육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재석(2024)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영작문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취지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과 인터뷰 자료를 수집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연구들에서 작문과 관련된 예비교사들의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그 수가 매우 적었을 뿐더러 이들의 복합적 인식이나 이들이 느끼는 갈등이나 모순 등의 심도 깊은 주제가 다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문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복합적인 인식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탐색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문 및 작문교육에 활용하는 데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더욱 심도 깊게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체계화된 방법을 통해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다(Creswell/조흥식 외 역, 2007/2010). 근거이론의 실천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 중에서, 본 연구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 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하였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적용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자료로부터 도출된 핵심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 범주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Strauss & Corbin/신경림 역, 1998/2001). 이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인식에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는 지점들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근거이론 및 패러다임 모형의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참여자 및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소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27명(여학생 17명, 남학생 10명)이다. 연구 주제 관련 심리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학생-교사의 이중 정체성이 더욱 분명한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작문 지도 경험이나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저학년 재학생 중에서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대신 동일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한 편의 글을 쓰고 GenAI 도구를 활용하여 글을 생성한 후 비교 분석하게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을 동일한 쓰기 과제에 대한 비교 및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작문교육적 적용에 대한 인식으로 국한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막연한 추측 대신 실제 수행을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동일 과제에 의한 유사한 과정 수행으로 제약을 뒀으로써 참여자 간 인식의 비교도 더욱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직접 한 편의 글을 쓰고 난 후, 동일한 과제에 대해 GenAI를 활용해서도 또

한 편의 글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난 후 두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GenAI를 작문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자기보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쓰기 과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의학적 쟁점들을 확인한 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에게 조언하는 글 작성하기’였는데, 학습 목적 글 쓰기(writing-to-learn)의 취지를 살리고자,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같은 정도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GenAI 글쓰기로도 적합한 주제로 골랐다. 또한 학내 웹진의 기고 상황 설정을 통해 자료 종합 글쓰기의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분량은 A4 한 장 내외였으며, 개념 및 쟁점, 대처 방법에 대한 소개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직접 한 편의 글을 완성한 후 동일한 과제에 대해 GenAI를 활용하여 또 한 편의 글을 생성하였는데, 이때 활용한 도구는 GPT-4.0이 적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Bing Chat)이었다.¹⁾ 빙챗은 인용 및 각주를 별도로 표시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보다 자료 종합 글쓰기의 취지를 살리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참여자들은 빙챗과의 질문-답변 과정을 통해 동일한 과제에 대한 글을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두 글쓰기 과정에 대한 작문교육적 성찰을 포함하는 자기보고(self-report)를 작성하였다. 자기보고의 양식에서는 직접 글을 쓸 때와 빙챗에 질문하여 글을 생산할 때의 과정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작문교육적 적용 시 유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서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자기보고는 별도의 문항이 주어지는 대신 위의 요구사항을 넣어서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태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며, 해당 글이 질적 분석의 주요 원자료가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는 자기보고의 글이었으며, 삼각 검증의 차원에서 이들이 작성한 두 편의 글(직접 쓴 글과 GenAI 활용 글)을 보조적으로 분석하였다.

1)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은 현재 코파일럿(Copilot)이라는 이름으로 재 브랜딩되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원리에 따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실시함으로써 핵심 범주 및 연구의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방 코딩(open coding)은 근거이론 분석의 첫 단계로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개념들을 명명하고 해당 개념들을 범주로 묶어주는 단계이다. 축 코딩(axial coding)의 과정에서는 개방 코딩에서 판별된 범주들을 재구성하는데, 이때 패러다임 모형의 제안에 따라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on),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의 6개 축을 활용하여 범주들 간의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에서는 축 코딩의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 범주(core categories)를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윤곽을 구성함으로써 이론적인 통합을 완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절차에 따라, 27명 예비교사들의 자기보고를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의 방법으로 비교·검토하면서 개념들을 코딩하고 개념 간 관계를 고려하여 범주들을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직접 작성한 글과 Gen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개념 및 범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찾아낸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이 제시하는 6개 요소의 관계로 재구성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선택 코딩을 통해 축 코딩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범주를 찾아내고 나머지 요소들의 관계를 연결 지어 이야기 윤곽을 완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 코딩 결과: 개념과 범주 도출

근거이론을 적용한 초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개방 코딩의 과정을 통해 89개의 개념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27개의 범주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²⁾

<표 1>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범주	개념
1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전망	GenAI 활용에 대해 긍정적 전망 표현
		GenAI 활용에 대해 유보적·부정적 전망 표현
		GenAI 활용 글쓰기의 예술적 가능성 예측
		GenAI의 기술적 하락 가능성 예측
		양질의 개성 있는 글 생산이 줄어들 것을 예측
2	GenAI 활용은 글의 구성 및 조직에 유리함	글의 구성 및 전개에 도움이 됨
		내용 간 일관성 있는 연결이 이루어짐
		통일성이 높게 나타남
3	GenAI 활용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	새로운 관점 및 방식의 간접 체험 기회가 됨
4	GenAI 활용은 글쓰기의 과정에 도움이 됨	글의 수정에 도움이 됨
		자료 참조가 용이하고 효율적임
		추가 읽기 자료를 제공함
5	GenAI를 활용한 질문-답변 과정이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질문-답변 과정을 검토하면서 글쓰기 사고

2)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예비교사들의 판단과 견해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개념 명이나 범주명은 작문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해와 오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유용함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함
6	GenAI 활용은 표현의 다양성과 명료성 확보에 도움이 됨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 사용에 도움이 됨
		표현이 쉽고 명확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적절히 드러냄
7	GenAI 활용은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에 유리함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적절히 갖추는 데 도움이 됨
8	GenAI 활용은 글쓰기의 효율성을 높여줌	인간이 직접 쓸 때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됨
		인간이 쓸 때보다 더 많은 분량 확보가 가능함
9	GenAI 활용 글쓰기는 구성과 조직이 취약함	글의 조직이나 구성이 미흡함
		내용 간 연결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함
		전반적인 통일성이 부족함
10	GenAI 활용 글쓰기는 내용의 깊이와 창의성이 부족함	다양한 쟁점 등 심화 내용을 다루지 못함
		복잡한 자료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킴
		내용이 창의적이지 못함
11	GenAI 활용은 글쓰기에 효율적이지 못함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분량이 짧은 편이며 상세한 답변을 얻기 어려움
12	GenAI 활용 글쓰기는 수사적 상황 고려가 미흡함	독자를 고려하는 글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글의 장르나 지면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
13	GenAI 활용 글쓰기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나타남
		자료 출처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움
		원자료의 왜곡이 나타남
14	질문-답변 과정의 한계	질문 일부를 누락한 답변이 나타남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려움
		질문-답변만으로 불충분함
15	GenAI 활용 글쓰기는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생성한 내용이 소기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음
		생성한 내용의 근거가 미약함
16	GenAI 활용 글쓰기는 표현상의 한계가 있음	표현이 진부하고 정형화 되어 있음
		인간적인 개성을 잘 드러내지 못함
17	글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AI 활용 글쓰기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음
		인간이 직접 쓴 글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음
18	GenAI 활용 글쓰기의 과정	질문 생성하기
		답변 재구성하기
19	인간 글쓰기의 과정	개요 작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수사적 상황 고려하기

		다문서 읽기
		과정 중심 수정하기
		자료를 직접 선택하고 재구성하기
		상위인지적 조정하기
20	인간 글쓰기의 어려움	구성 및 전개 어려움
		시간과 노력의 부담
		쓰기 불안의 우려
		문법적 고려의 어려움 및 부담
21	인간 글쓰기의 의의(사고/학습 측면)	사고 및 표현 과정의 중요성
		담화 종합 과정의 의의
		학습 목적 글쓰기의 의의
		창의성의 발현
22	인간 글쓰기의 의의(표현/정서 측면)	글쓰기 과정에서 오는 만족, 흥미, 성취감
		표현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음
23	인간 글쓰기와 GenAI 활용 글쓰기의 차이 인식	자료 수집 및 활용 방식의 차이 인식
		노력 및 집중의 차이 인식
		필요한 기능과 과정의 차이 인식
		장르에 따른 효과 차이 인식
		질문 특성의 차이 인식
24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모순적 인식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내용 풍부성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내용/표현 창의성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내용 신뢰성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구성/전개 적절성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표현 적절성 인식의 참여자 간 모순
		결과물 만족도에 대한 참여자 간 모순
		독자 고려의 미흡 관련 참여자 간/내 모순
		GenAI 활용 글쓰기 지도 관련 참여자 간/내 모순
25	GenAI 활용 글쓰기의 지도 방안	검색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도
		질문의 상세화, 체계적 질문하기 등의 지도
		GenAI가 작성한 글을 인간이 수정하는 활동
		인간이 먼저 개요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
26	AI 시대 작문교육의 의의 및 전제 조건	작문교육에서 AI 활용의 의의
		작문 과정의 분업 가능성
		AI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함
		자료 활용 교육(방법, 윤리)이 필요함
		검색 능력과 어휘력 지도가 필요함
		비판적 시각을 길러주어야 함

27	GenAI 활용에 대한 작문교육 관점의 우려	쓰기 과정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부족해질 수 있음
		인간 작문 능력 향상의 저해 요인이 될 것임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됨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동일한 과제에 대해 직접 글을 쓴 후 GenAI를 활용해서도 내용을 생성하였으며, 두 과정의 경험과 관련지어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분석 자료인 자기보고의 내용은 해당 경험에 국한된 분석을 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 더욱 용이하기도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GenAI 도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보고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GenAI를 활용하는 글쓰기를 유용하고 효율적이라고 간주하였던 반면(범주 2~8), 또 다른 참여자들은 부족함과 한계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며(범주 9~16), 어떤 참여자들은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의 양면적 면모에 대해 함께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축 코딩 결과: 패러다임 모형의 적용

개방 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한 개념과 범주들을 중심으로, 축 코딩의 과정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범주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6개 항목별로 범주들을 배치하여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다양한 인식이 어떠한 관련성 하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 노력을 쏟아야 하지만 GenAI 도구를 활용하면 표현이나 구성 과정에 거의 노력을 쏟지 않는 대신 질문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 글쓰기와 GenAI 활용 글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에 그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기능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도 인식하였는데, 예를 들어 GenAI 활용 글쓰기가 “분석하고 설명하는”³⁾ 데 적합하다면 인간 글쓰기는 “인간적인 재치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글에 더욱 적합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참여자들은 GenAI 활용 글쓰기에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관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입장에서 “좋은 질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이렇듯 예비교사들은 장단점을 떠나 인간 글쓰기와 GenAI 활용 글쓰기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구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을 의미한다. 인간 글쓰기와의 비교가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GenAI 활용 글쓰기가 지니는 강점과 특징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GenAI 활용 글쓰기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다수의 참여자들이 ‘시간의 효율성’을 꼽았다. 이들은 작문에서 GenAI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글 작성이 가능”하며, 질문-답변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쓸 때에 비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범주 8). 이러한 효율성은 쓰기 과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났는

3) 본고에서는 참여자의 구체적 진술을 큰따옴표(“”)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근거를 삽입하면서 분석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데, 자료조사 등 글쓰기 전(前) 과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빙챗 도구의 특성이기는 하나 출처를 밝혀주어 추가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범주 4). 그 외에도 여러 참여자들이 GenAI 활용 글쓰기가 가독성이 좋고 “쉽고 명료한 표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범주 6), 질문-답변의 과정을 통해 소통과 명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범주 5).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적 요인들을 의미한다. 한 편의 글을 쓰는 일은 매우 고차원적인 인지적 과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부담이 매우 크다(Flower & Hayes, 1980; Kellogg, 1996). GenAI 활용 글쓰기는 바로 이러한 작문의 근원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인간 글쓰기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 글쓰기 및 GenAI 활용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인식은 이 연구의 맥락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인간의 글쓰기는 여러 자료들을 읽고 내용을 선별·재구성·생성해내고 수사적 상황에 맞게 조직 및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들을 상위인지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범주 19). 그러므로 내용 구상부터 구성, 표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난도의 인지적 작업을 요구하기에,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어법과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였는지 여부를 늘 신경 써야 하며, 몇몇 필자들은 쓰기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범주 20). 그러나 이와 달리, GenAI 도구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원하는 글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적절히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범주 18).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 요인을 일컫는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GenAI 활용 글쓰기의 장점과 가능성은 인과적 조건으로서 인간 글쓰기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그 약점과 한계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결국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모순적이거나 복합적인 양상을 띠도록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인간 글쓰기의 의의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러한 모순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GenAI 활용 글쓰기의 장점보다도 한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지적사항들을 제공해주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가장 큰 약점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범주 13). 이들에 따르면, 빙챗처럼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키백과나 개인 블로그 등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정보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으며, 원자료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왜곡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해 GenAI가 적절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진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범주 10, 14, 15). 콜레스테롤의 영향과 관련하여 분명히 상반된 견해와 쟁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enAI는 “쟁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정리 혹은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 때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GenAI 활용 글쓰기는 독자 고려 등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글 결과물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범주 12), 통일성과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전개 양상(범주 9) 및 진부하고 개성이 부족한 표현(범주 16) 등의 한계도 보여주었다.

한편, GenAI 활용 글쓰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의 글쓰기가 “사고의 과정”이며 “자료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러 참여자들이 학습 도구로서의 작문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였다(범주 21). 또 다른 참여자들은 직접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얻는 흥미나 만족감 등 정서적 차원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범주 22).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 현상에 대처하는 행동과 전략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인간 글쓰기와 GenAI 활용 글쓰기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글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과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모순적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GenAI 활용 글쓰기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은 일관된 경향성을 띠기보다는 다소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의 모순된 인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범주 24). 특히, GenAI 활용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인간 글쓰기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을 지니는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은 이러한 모순적 인식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GenAI가 글쓰기에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떤 참여자는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고 보았던 데 반해, 또 다른 참여자는 “질문을 구성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기에 과연 효율적인지 의심스럽다고 반응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은 GenAI가 참고하는 자료의 풍부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심화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뻔한 내용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 글쓰기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내용 및 표현의 창의성과 관련해서도 일부 참여자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고 보았던 반면, 여러 참여자들이 내용 혹은

표현 측면에서 진부하거나 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성 및 전개 of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몇몇 참여자들은 “다양한 내용 조직 원리를 보여”주거나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글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또 다른 참여자들은 “문단 간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관련이 미약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인식은 비단 ‘참여자 간’뿐만 아니라 동일한 ‘참여자 내’의 진술에서도 나타났다. 참여자 간 인식의 차이는 사전 지식이나 글쓰기 능력, GenAI 활용 경험 등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참여자 내 인식의 차이는 그 자체로 더욱 본격적인 모순 혹은 혼란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참여자 중에는 GenAI 도구가 정보 검색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추후 작문교육에서 “자료를 손쉽게 빠르게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 이도 있었고, GenAI 도구가 독자 고려에 취약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글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 고려가 충분치 않다고 진술한 이도 있었다. 이렇듯 모순적인 인식들이 나타나다 보니, 결과물 만족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과 GenAI가 작성한 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들이 나타났으며,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들도 꽤 많았다(범주 17).

6)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과 전략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나 결과를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심 현상은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모순적 인식과 불만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마찬가지로 향후 활용이나 작문교육적 적용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를 복합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으며(범주 1, 25, 27), 다양한 전제 조건들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다(범주 26). 참여자들이 지닌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유보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몇몇 참여자들은 예술적 글쓰기 차원에서도 GenAI 도구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리라고 예측한 반면, 또 다른 참여자들은 “양질의 개성 있는 글 생산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간편일수록 글을 쓰게 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드러냈다.

GenAI 활용 글쓰기 자체에 대한 향후 전망에서는 긍정적 차원도 많이 나타났던 데 비해, 작문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에 기운 견해들이 더욱 많이 나타났다. 여러 참여자들이 “무조건 챗봇에 의지하여 글을 쓰려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활용해 과제를 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과잉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GenAI의 작문교육적 활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관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GenAI 도구로 인해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작문 과정 체험 기회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작문 능력 습득을 저해”하리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GenAI 도구에 의존하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구조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GenAI 도구가 생성한 글들이 인간 글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일명 ‘인터넷 혼탁’이나 ‘모델 붕괴’ 현상에 대한 예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은 AI 시대 우리의 작문교육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와 관련한 입장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예비교사들은 무작정 기술부터 도입하기보다는 “AI 리터러시” 및 비판적 문식성을 갖추고 자료 활용의 방법과 윤리적 차원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이 마련된 이후라면 작문교육에서 GenAI 도구는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게” 해주며 인간과 AI가 분업을 통해 작문 과정을 운영하는 등 기존 작문교육과 다른 의미의 교육적 의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전망을 가지더라도,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작문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GenAI 활용 글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 방안으로서, 기존 인간 작문교육과 달리 ‘질문’ 행위가 핵심 기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다각도로 구체화하거나 체계적 질문하기의 전략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몇몇 예비교사들은 주어진 GenAI 활용 글쓰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GenAI의 분업 차원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제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GenAI 도구가 작성한 글을 인간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이 먼저 개요를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질문을 구체화하여 부분별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렇듯 분업의 차원으로 GenAI를 활용함으로써 “글의 구성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객관적인 눈으로 글을 읽는” 등 작문교육적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선택 코딩 결과: 핵심 범주 및 이야기 윤곽 도출

근거이론에서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선택 코딩을 통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낸다. 선택 코딩의 과정에서는 핵심 범주와 이야기 윤곽을 도출하는데, 핵심 범주는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범주들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 윤곽은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체계적으로 연결 지으면서 관

련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핵심 범주는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가 인간 글쓰기와 대비하여 지니는 효과를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에서 모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작문교육적으로 제한적이고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과제에 대하여 인간 글쓰기와 GenAI 활용 글쓰기를 모두 경험하였던 예비교사들은 해당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식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작문에서 GenAI 도구를 활용하는 일에 대해 효과적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결론내리기보다는, 장단점이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가 효율적이고 쓰기 과정의 부담을 줄여주며 쉽고 명료한 표현 생산에 유리하다고 보는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내용의 적절성과 일관성, 독자 고려 및 개성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효율성, 풍부성, 창의성, 전개와 일관성 등에 대한 판단은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작문에서 GenAI 도구를 활용하는 일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참여자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참여자, 자료 및 내용이 인간에 비해 풍요롭다고 인식한 참여자와 심화 내용 및 갈등이 있는 쟁점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참여자, 인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산출한다는 참여자와 그렇지 못하다는 참여자들이 공존하였다. 독자 고려나 작문교육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내 모순적 인식도 나타났다.

이들이 실제 작성한 두 편의 글에 대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GenAI 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한 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였다. 즉, 비록 정보 전달의 글쓰기였지만 자신의 개성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자 애를 썼던 참여자는 GenAI 활용 글쓰기가 진부하고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한다고 여겼으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애를 먹은 참여자는 표현상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성 및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글을 작성한 참여자는 GenAI 도구가 작성한 글을 상대적으로 ‘구성 및 전개가 탄탄한’ 글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많은 참여자들은 GenAI 도구가 작성한 글의 전개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렇듯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 모순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GenAI 활용 글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단적으로 결론내리기가 어려웠음을 방증한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긍정과 부정적 면모를 모두 밝혔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기대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작문교육적 적용과 관련하여 기대보다는 대부분 우려에 가까운 예측들을 이끌어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가 장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과연 진정으로 효과적인 도구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법하기도 하다. 특히 작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쓰기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글 자체가 유용한 산물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학습의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으로서 작문이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 자체의 유용성을 떠나 작문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며, AI 리터러시나 윤리적 교육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제약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학습 목적의 글쓰기는 작문교육의 근원적 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성된 글 결과물의 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일 자체가 지니는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GenAI 활용 글쓰기를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참여자도 없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많은 예비교사들은 GenAI 도구를 작문에 활용하는 일을 시대의 불가피한 흐름으로 관측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예비교사들은 위와 같

은 우려와 별도로 어떻게든 GenAI 도구 사용 자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질문을 구체화하는 전략과 작문 과정의 분업화를 위한 전략(GenAI의 글 수정하기, 개요 작성 후 단계별 질문하기 등) 등을 제안하면서, 향후 작문교육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27명의 예비교사들이 직접 쓴 글과 GenAI 도구를 작성한 글을 비교·분석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자기보고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로부터 귀납적·체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냈다. 개방 코딩으로부터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6개 항목으로 범주들을 분류하여 각 범주 간 관계들을 면밀히 탐구하였다. 그리고 선택 코딩의 결과로서,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가 인간 글쓰기와 대비하여 지니는 효과를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에서 모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작문교육적으로 제한적이고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이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이야기 윤곽을 완성하였다. 결국,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면모들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문교육적 적용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그러나 GenAI 도구의 활용이 불가피한 대세라는 인식 속에 해당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고민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GenAI 활용 글쓰기와 관련된 예비교

사 교육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범주는 어디까지나 해당 연구 자료에 국한된 결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이 변화한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글쓰기를 얼마나 어렵게 느끼는지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였던 GenAI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한 도구가 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결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국어과 예비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라는 점, 그리고 단일 글쓰기 과제에 의한 성찰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한 다양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GenAI 활용 글쓰기를 주제로 하는 예비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할 때 기본적으로 GenAI 도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요청하여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과제에 대해 GenAI 도구의 도움 없이 직접 글을 쓰게 하여 비교하는 활동은 이들이 Gen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더욱 잘 기르고 더 깊은 성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이 연구에서도 GenAI 도구 활용의 경험이 인간 글쓰기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거나 역으로 인간 글쓰기의 경험이 GenAI 도구의 효과적 활용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작문교육적 우려’를 표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교사 정체성에 좀 더 치우친 고학년 학생들을 배제하고 아직 교육 관련 강의 및 실천 경험이 거의 없는 저학년 학생들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가 많았다는 것은 곧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모두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선부른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는 점(Higgs & Stornaiuolo, 2024; Kim et al., 2025)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더욱 없다. 그간 연구들에서 Gen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치중해 왔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 GenAI 도구가 인간의 글쓰기보다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GenAI 도구가 인간의 글쓰기를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도구가 ‘인간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지를 더욱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잘 쓴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갖추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학습 목적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와도 직결된다.

넷째, 예비교사들이 제안한 GenAI 활용 글쓰기 지도 방안 중에는 개요 작성하기 혹은 수정하기와 같이 ‘쓰기 과정의 일부만 인간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 실제 작문교육에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제안들도 있었다. 특히 작문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작문 과정의 분업 가능성’은 기존 작문교육 이론들 중에서도 미숙한 필자를 위한 여러 지도 방안들을 제안한 바 있는 연구 성과들(Bereiter & Scardamalia, 1987; Harris, Graham, Mason, & Friedlander, 2008)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ereiter & Scardamalia(1987)는 미숙한 필자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 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몇 가지 방법(계획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김혜연, 2005), 그때의 교사 역할을 GenAI 도구가 대신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이론들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작문 지도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반 대학생에 비해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좀 더 복잡다단하거나 모순적인 심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Jin et al.(2025)이나 Kim et al.(2025) 등의 연구에서 낙관적인 전망이나 효율성에 대해 좀 더 크게 인식하였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차원이나 우려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 모순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순은 극복의 대상이기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이 도구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즉,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 식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차라리 모순이나 불일치, 모호한 태도를 보일지라도 다양한 측면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예비교사들에게 더욱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예비교사 교육 현장에서 GenAI 활용 글쓰기에 대해 다룰 때에는 이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나 이것이 효과적인지 여부만을 따지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 교육의 교수자 역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 논문은 2025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2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참고문헌

- 권태현(2023),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 -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3, 137-174, 한민족문화학회.
- 김종민(2023), 「대학 교양 글쓰기 강좌에 대한 예비 교사 수강생의 수업 인식 유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17(3), 171-185, 한국교양교육학회. DOI : 10.46392/kjge.2023.17.3.171
- 김혜연(2005), 『쓰기 미숙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연(2015), 「예비 초등 교사의 글쓰기 요구 인식 -정체성 인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425-46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DOI : 10.17313/jkorle.2015..36.425
- 김혜연(2024), 「예비교사의 작문 평가 문식성 관련 연구 동향 - 주제범위 문헌 고찰의 적용」, 『리터러시 연구』 15(5), 309-340, 한국리터러시학회. DOI : 10.37736/KJLR.2024.10.15.5.10
- 서수현·정혜승(2013),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쓰기 윤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 『작문연구』 18, 175-207, 한국작문학회.
- 양재석(2024), 「영작문 도구로서의 인공지능번역 활용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10(1), 121-128, 국제문화기술진흥원. DOI : 10.17703/JCCT.2024.10.1.121
- 오선경·장미정·박정은(2023), 「대학 글쓰기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윤리에 대한 학부생 인식 연구」, 『리터러시 연구』 14(4), 69-96, 한국리터러시학회. DOI : 10.37736/KJLR.2023.08.14.4.03
- 이슬기(2024), 「ChatGPT 활용 글쓰기에서 질문 전략의 교수 방안 설계와 적용 -SMART 전략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98, 119-150, 청람어문교육학회. DOI : 10.26589/jockle..98.202403.119
- 이윤빈(2023),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에 대한 질문 양상 연구 -쓰기 수준별 필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7(4), 35-52, 한국교양교육학회. DOI : 10.46392/kjge.2023.17.4.35
- 장성민(2023),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6, 7-34, 한국작문학회. DOI :

10.31565/korrow.2023..56.001

장은정(2023), 「예비교사의 생성형 AI ChatGPT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정의적 영역과 기술 수용성 평가」, 『Brain, Digital, & Learning』 13(3), 229-243, 한국교원대학교 뇌-AI기반교육연구소. DOI : 10.31216/bdl.20230014

주민재(2023),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 방향 모색 - ‘쓰기 전 단계’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대학 학습자의 효용성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4, 71-103, 돈암어문학회.

최진영·김형성·송보라·김지수(2023),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한 고등학생의 작문 과제 고쳐쓰기 양상」, 『리터러시 연구』 14(6), 79-119, 한국리터러시학회. DOI : 10.37736/KJLR.2023.12.14.6.03

Alkaissi, H., & McFarlane, S. I.(2023), Artificial Hallucinations in ChatGPT: Implications in Scientific Writing. *Cureus* 15(2), e35179. DOI : 0.7759/cureus.35179

Bedington, A., Halcomb, E. F., McKee, H. A., Sargent, T., & Smith, A.(2024), Writing with generative AI and human-machine teaming: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rom faculty and students. *Computers and Composition* 71, 102833. DOI : 10.1016/j.compcom.2024.102833

Bereiter, C., & Scardamalia, M.(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iang, T.(2023), ChatGPT is a blurry JPEG of the web.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tech/annals-of-technology/chatgpt-is-a-blurry-jpeg-of-the-web>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Flower, L. S., & Hayes, J. R.(1980), The dynamics of composing: Making plans and juggling constraints. In L. W. Gregg & E. R. Steinberg(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pp. 31-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asaymeh, A.-M. M., Beirat, M. A., & Qbeita, A. A. A.(2024), University Students' Insight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Writing Tools. *Education Sciences* 14(10), 1062. DOI : 10.3390/educsci14101062

Harris, K. R., Graham, S., Mason, L. H., & Friedlander, B.(2008), *Powerful*

- writing strategies for all student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Harrison, J., & Lakin, J.(2018), Pre-service teachers' implicit and explicit beliefs about English language learners: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stud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72, 54-63. DOI : 10.1016/j.tate.2017.12.015
- Heaven, W. D.(2024), Why does AI hallucinate? *MIT Technology Review* 127(4), 20-21.
- Heersmink, R., De Rooij, B., Vázquez, M. J. C., & Colombo, M.(2024), A phenomenology and epistemology of large language models: transparency, trust, and trustworthines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6(3), 26-41. DOI : 10.1007/s10676-024-09777-3
- Higgs, J. M., & Stornaiuolo, A.(2024), Being Human in the Age of Generative AI: Young People's Ethical Concerns about Writing and Living with Machin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59(4), 632-650. DOI : 10.1002/rrq.552
- Jin, F., Sun, L., Pan, Y., & Lin, C.-H.(2025), High heels, compass, spider-man, or drug? Metaphor analysi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cademic writing. *Computers & Education* 228, 105248. DOI : 10.1016/j.compedu.2025.105248
- Kellogg, R. T.(1996), A model of working memory in writing. In C. M. Levy & S. Ransdell(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pp. 57-7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m, J., Yu, S., Detrick, R., & Li, N.(2025), Exploring students' perspectives on Generative AI-assisted academic writ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30, 1265 - 1300. DOI : 10.1007/s10639-024-12878-7
- Mulligan, S. J.(2024), AI trained on AI garbage spits out AI garbage.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4/07/24/1095263/ai-that-feeds-on-a-diet-of-ai-garbage-ends-up-spitting-out-nonsense/>
- Strauss, A. L., & Corbin, J. M.(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 Timošćuk, I., & Ugaste, A.(2010), Student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8), 1563-1570. DOI :

10.1016/j.tate.2010.06.008

VanDerHeide, J., & Johnson, A.(2020), Examining preservice teachers' narratives of teaching dialogicall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87, 102946. DOI : 10.1016/j.tate.2019.102946

투 고 자 : 김혜연

근 무 지 : 동국대학교-서울

직 위 : 부교수

전자우편 : hyeyoun.kim@dgu.ac.kr

■ 국문초록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 근거이론에 의한 탐구

김 혜 연
동국대학교-서울 부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문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 차원의 인식 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고 작문교육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자이자 교수자의 이중 정체성을 지닌 예비교사의 인식에 대한 질적인 탐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어교육 전공 예비교사 27명이 직접 한 편의 글을 쓰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동일한 과제에 대한 글을 생산하고, 두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자기보고를 작성하였다. 근거이론 및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자기보고 및 이들의 글 결과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개방 코딩과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석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GenAI 활용 글쓰기가 인간 글쓰기와 대비하여 지니는 효과를 참여자 간 혹은 참여자 내에서 모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작문교육적으로 제한적이고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이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인간의 글쓰기를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도구가 ‘인간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지를 더욱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예비교사 교육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별도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인공지능, 챗지피티, 작문, 작문교육, 예비교사, 인식 조사, 패러다임 모형

■ ABSTRACT ■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Writing with Generative AI

- A Grounded Theory Approach

Kim, Hyeyoun

Associat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Seoul

Despite the ongoing discourse on how to utiliz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in writing educa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is phenomenon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ue meaning of writing using GenAI and explore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depth by conducting a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who embody dual identities as learners and educators. To this end, 27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completed two writing tasks: one by composing an essay independently and the other by utilizing GenAI tools to produce an essay on the same topic. Participants also submitted self-report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wo process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elf-reports and written outputs was conducted based on grounded theory and a paradigm model. Through a systematic analytical process—includ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the present study identified a core category: "Pre-service teachers perceived the effects of writing with GenAI in contradictory ways, both across and within participants, as compared to human writing, and emphasized the need for a cautious and limited application of GenAI in writing educat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exploring whether GenAI tools could transcend merely assisting human writing to actively enhancing human writing abilitie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writing, writing education, preservice teacher, Awareness, Paradigm model